

**<비욘드 투모로우> 하계 글로벌 연수 아시아 서머 프로그램 (한국)
~민간외교를 위한 한일 청년 파트너십~ - 기획안 -**

2016년 8월
일반재단법인 교육지원 글로벌기금

1. 취지

<비욘드 투모로우>의 해외사업을 보다 의미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젊은이들에 의한 민간외교의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양국 내의 사회적차로 인한 기회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시기에, 글로벌한 시야를 가지고 활동할 기회가 비교적 한정된 학생들이 서로 중요한 파트너라 할 수 있는 나라의 또래 젊은이들과 숙식을 같이하며 커다란 깨달음을 얻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장래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2016년 8월에 한일 간의 대화 사업을 개최합니다. 2016년 여름, 일본 전국에서 선발된 고교생과 대학생 11명이 한국을 방문하여 현지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문제에 대해 협의합니다. 양국 간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두 나라에 어떤 사회적 문제가 존재하는지 추출한 후, 어떻게 양국의 젊은이들이 정치나 정책 기획에 참여하여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를 토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의 인재육성을 위한 한·중·일 및 미국의 참가를 염두에 두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이는 포럼의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2. 지금까지의 하계 글로벌 연수 경과

지금까지 <비욘드 투모로우>에서는 동북 지진 피해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프랑스·독일 등의 나라에서 하계 글로벌 연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실적을 바탕으로 2016년 여름에는 참가학생의 대상을 일본 전국으로 확대하여 미국 및 아시아에서의 인재육성을 꾀할 계획입니다.

2012년	미국 서머 프로그램	(뉴올리언스·보스턴·뉴욕·워싱턴 DC)
2013년	미국 서머 프로그램	(샌프란시스코·뉴욕)
	유럽 서머 프로그램	(프랑스·독일)
2014년	미국 서머 프로그램	(보스턴·뉴욕)
	유럽 서머 프로그램	(프랑스·독일)
	아시아 서머 프로그램	(필리핀)
2015년	미국 서머 프로그램	(보스턴·뉴욕) [무라세 지로 기념 장학사업]
	아시아 서머 프로그램	(필리핀)

3. 목적

- i. 양국에 존재하는 사회적 문제의 검토와 해결을 위한 협의
한일 양국에서 선발된 고교생과 대학생들이 각 나라에 존재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젊은이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차, 지방쇠퇴, 청년 고용 등 양국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 논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단순히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검토한 후 한일 양국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생각해봄으로써 보다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ii.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대표하는 학생들에 의한 한일 교류의 실천
지금처럼 한일 양국 내의 사회적차로 인한 기회 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시기에, 글로벌한 시야를 가지고 활동할 기회가 비교적 한정된 학생들이 서로 중요한 파트너라 할 수 있는 이웃 나라의 또래 젊은이들과 숙식을 같이하며 커다란 깨달음을 얻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장래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참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시 지역에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해서 해외로 시선을 돌릴 기회가 많은 학생뿐만 아니라, 도시와 떨어진 곳에 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통상적으로는 글로벌한 시야를 키울 기회가 한정되어있지만,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 사회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학생들을 한일 양국에서 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한일 학생들이 숙식을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체험이나 의견이 반영되는 사업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iii.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이는 민간외교의 플랫폼 구축

때로는 어려운 외교 문제를 안고 있는 한일 양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상호 신뢰관계를 쌓고 건설적인 논의를 심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업을 일회성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으로 끝내지 않고 한일 양국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인재 육성에 힘쓰는 자리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정치·행정·비즈니스·학계·미디어·시민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리더들을 불러모을 계획입니다. 또한, 본사업에 참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많은 사람이 후일 한일관계가 어려운 국면에 처했을 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연계하여 한일 양국이 건설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는 역할을 해 나가리라 기대합니다.

4. 대상자

- 비온드 투모로우 재팬 미래 펠로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본 측 학생 총 11명
(대학생 8명, 고교생 3명).
참가자는 일본 전국 각지 출신으로 다양한 사정에 의해 통상적으로 기회가 한정된 학생들
그중 동북 지역 출신의 학생이 약 절반을 차지
(일반 공모를 통해 약 10 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한 학생들을 선발)
- 한국 각지 출신의 고교생과 대학생 총 8명
(일반 공모를 통해 약 3 대 1의 경쟁률을 통과한 학생들을 선발)

5. 기간

2016년 8월 17일(수)~24일(수)
※일본 측 참가학생은 8월 16일(화)에 집합하여 1박 2일의 사전연수에 참가

6. 장소

한국 : 서울 · 대전 · 부산

7. 협력단체

지원	국제교류기금
후원	주한 일본대사관
	주한 미국대사관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
	주부산 미국 총영사관
	한일 문화교류기금
운영협력	부산 한일교류센터

8. 프로그램 안

[수준 높은 회합]

정치·비즈니스·미디어·문화예술·시민사회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리더를 방문하여 한국의

사회적 과제와 도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입니다. 특히 한국을 중심으로 글로벌한 시야를 가지고 인풋을 제공해줄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문제의 검토]

한국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 문제가 존재하는 지역 및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실상에 대한 공청회 및 교류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한일 양국의 사회적 문제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검증하고 논의합니다.

[대화]

한일 학생들이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자신의 인생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관계를 구축하는 자리를 제공합니다.

[토론·제언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을 정리하여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정치나 정책 기획에 참여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고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양국 정부에 제언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일정 안)

	도 시	내 용
8월 16일(화)	도쿄	-집합·오리엔테이션·장행식
8월 17일(수)	도쿄 → 서울	-도쿄 → 서울 이동 -한일 학생 집합·오리엔테이션 -환영 만찬
8월 18일(목)	서울	-한중일 삼국 협력 사무국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 브리핑 세션 -주한 일본 대사관 예방 -세월호 사건 유족과의 교류
8월 19일(금)	서울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Global Asia Leadership Forum과의 토론 -외국인 이민·다문화 가족에 대한 브리핑
8월 20일(토)	서울	-관문점·남북 경계선 시찰 -리셉션·제언 작성 중간 발표회
8월 21일(일)	서울 → 대전 → 부산	-서울 → 대전 이동 -대전 : 빈곤 지역 시찰·주민과의 의견 교환 -대전 → 부산 이동
8월 22일(월)	부산	-탈북자 학교 방문 -부산 관광 개발에 대한 브리핑 -해변 활동
8월 23일(화)	부산	-최종제언 작성 -폐회식·최종제언 발표회 -송별 만찬
8월 24일(수)	부산 → 도쿄	-해산·일본 학생 출국

9. 일반재단법인 교육지원 글로벌기금/ <비욘드 투모로우> 소개

일반재단법인 교육지원 글로벌기금은 도쿄에 본사를 둔 일본의 재단법인으로, 공감력있는 차세대 글로벌 시티즌(지구 시민)을 배출하기 위한 인재 육성사업인 <비욘드 투모로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경은 훌륭한 리더를 만든다”는 이념 아래, 차세대를 짊어진 젊은이들이 모여 깊은 사고와 진지한 반성을 토대로 타인과의 대화를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하여 보다 넓은 관점과 깊은 공감력을 가지고 사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필리핀 등에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최해왔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beyond-tomorrow.org/>)

이사	橋本 大二郎 小林 正忠 佐藤 輝英 坪内 南 本庄 竜介 村瀬 悟	하시모토 다이지로 (이사장) 고바야시 마사타다 사토 데루히데 쓰보우치 미나미 혼조 류스케 무라세 사토루
평의원	木山 啓子 宮城 治男 山崎 直子	기야마 게이코 미야기 하루오 야마자키 나오코
고문	阿川 尚之 竹中 平蔵	아가와 나오유키 다케나카 헤이조
감사	江崎 滋恒	에자키 시게요시

10. 아시아 서머 프로그램 (한국) 2016 참가자 일람

[일본 측 참가자 (11명)]



澤田 万尋 사와다 마히로

와세다 대학 기간이공학부 (미야기 현 센다이 다이니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생 때부터 <비욘드 투모로우>에 참가해왔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학교 친구와는 어딘가 다르게 더 많은 것을 공감할 수 있고 자극을 주는 존재였다. <비욘드 투모로우>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을 방문했을 때 지적 능력과 기술을 집결시켜 개발에 도전하는 항공업계에 큰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장래에는 항공업계에서 기체개발 관련업에 종사할 생각이다. 고교 시절, 자신을 지탱해주고 힘이 되어준 선배들의 모습에 감명을 받아 자신도 후배들을 도와주는 존재가 되고 싶어 펠로우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번 아시아 서머 프로그램에서는 학생 인턴 스태프의 자격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一法師 光希 잇포시 고후키

홋카이도 삿포로 히가시 고등학교

고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비욘드 투모로우> 활동에 참가해왔다. 평소에는 몰랐던 소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여,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후회 없는 나날을 보내기 위해 펠로우 프로그램에 응모하게 되었다. <비욘드 투모로우>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편견 없이 국경이나 문화를 초월해 많은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장래에는 어린이와 관련된 일을 하며 아이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사고할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다.



伊藤 豪祐 이토 고스케

도호쿠 대학 공학부 (센다이 세이료 중등교육학교 졸업)

거리에서 자란 필리핀 청년과의 만남에 충격을 받아 개발도상국의 현실을 몰랐던 자신에게 분노마저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직업훈련소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비욘드 투모로우>에 참가하면서 시야를 일본에만 둘 게 아니라, 세계 속의 일본, 세계 속의 자신이라는 관점을 키우고 싶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의공학 분야에서 초음파 암 치료를 공부하여 장래에는 개발 도상국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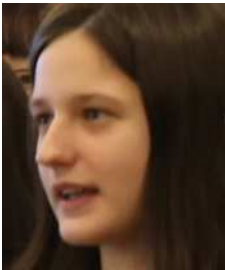
稲村 ほのか 이나무라 호노카
미야기 가쿠인 고등학교

동일본 대지진으로 집을 잃었다. 그 후, 볼리비아에서 1년간 유학하며 빈부 격차를 직접 눈으로 보며 교육을 받지 못하면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귀국 후에는 <비욘드 투모로우>의 국내외 활동에 참여하며 개발지원이나 교육격차에 대해 배울 기회를 얻었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함과 생각하는 힘을 발견하면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해왔다. 이번 펠로우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며 시야를 넓혀갈 생각이다.



佐藤 舞 사토 마이
나고야 시립대학 간호학부 (이와테 현립 오후나토 고등학교 졸업)

동일본 대지진으로 리쿠젠타카타 시에 있던 집을 잃었다. 고교 2학년 때에 <비욘드 투모로우>에 참가하여 처음으로 자신의 지진피해 경험을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들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험을 통해서 그제야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길 바라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귀중한 체험을 했고 이번에 다시 <비욘드 투모로우>에 참가하여 시야를 넓히고 깊은 사고력을 키우고 싶어서 펠로우 프로그램에 응모하게 되었다. 장래 희망은 간호사로, 리쿠젠타카타와 같은 인구 과소지역에서도 충분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면서 지역을 활기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한다.



ステポシナ エカテリーナ 스테포시나 에카테리나
후쿠오카 현립 카시이 고등학교

9살 때 우크라이나에서 일본으로 이주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생했던 경험이 있다.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래 희망은 외국인 지원사업을 하는 기업가. 고교 1학년 때 처음 <비욘드 투모로우> 활동에 참여하여 시야와 세계관이 넓어지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성장을 멈추고 싶지 않기에, 새로운 도전을 목표로 펠로우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 현재는 학생회 부회장으로서 활약하는 한편, 국공립대학 경제학부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 공부에 매진 중이다.



高橋 奈々美 다카하시 나나미
국제 기독교 대학 (스위스 St. George's School 졸업)

동일본 대지진 직후에 처음 알게 된 이래로, <비욘드 투모로우>는 어려울 때마다 힘이 되어준 곳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지진 후, 프랑스와 스위스에 유학 가서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글로벌한 감성을 갖게 되었고 영어, 프랑스어도 연마했다. 장래 희망은 빈곤이나 재해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 행복을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번 기회를 통해 괴롭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줄 생각이다.



西岡 大穂 니시오카 다이호 **돗토리 대학 농학부 (교토 부립 가쓰라 고등학교 졸업)**

자연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농업 공부를 시작했지만, 염류 축적 작용 등의 문제 때문에 농업이 어려운 지역이 있고, 이로 인해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의 농업에 대해 배워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농업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고교 시절에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농업을 생각하는 연구활동에 몰두하며 전국대회에도 나간 경험이 있다. 장래에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항상 자문자답을 거듭하며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나가는 사람이 되어 행복 농업 실현에 공헌하고 싶다고 한다.



福田 栄治朗 후쿠다 에이지로

간세이 가쿠인 대학 종합정책학부 (모모야마 가쿠인 고등학교 졸업)

빈곤과 교육격차의 현실 속에서 자랐지만, 고베의 축구팀에서 플레이를 계속하며 초등학생 때에는 독일월드컵 대회의 현지과건선수로 뽑혔고, 고교 시절에는 캐나다에서 일본인으로서 현지 클럽팀을 인솔해서 미국 원정에 나선 경험도 있다. 대학 진학의 목적은 안전보장과 환경정책에 관해 공부해서 일본과 아시아의 미래에 공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다음 세대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며 일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격차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것보다도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松藤 江巳吏 마쓰후지 에미리

고치 대학 인문사회과학부 (고치 시립 고치상업 고등학교 졸업)

고교 시절, 라오스에 학교를 선물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비엔티안 현청을 방문해 고치 특산품인 고구마 과자와 생강 사탕을 라오스에서 제조할 것을 제안하는 등, 라오스와 고치를 연결하는 활동에 힘써왔다. 그를 계기로 세계와 일본의 가교적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장래 희망은 일본어와 영어 교사 자격증을 따서 교사가 되는 것과 자랑거리가 많은 고치 현을 일본 전국과 해외에도 알릴 수 있는 사업에도 힘쓰고 싶다고.



山崎 成歩 아마자키 나호

세이신 여자대학 문학부 (이와테 현립 모리오카 다이시 고등학교 졸업)

동일본 대지진으로 조부모를 잃는 경험을 통해, 돌아가신 분들의 몫까지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살아있기에 가능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실패를 두려워 말고 미지의 기회에 도전하며 여러 가지를 배우고 싶다고. 장래 희망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국과도 관련된 국제 금융업을 하는 것. 그래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다.

[한국 측 참가자 (8명)]



차고은 (Go-eun Cha)

덕문 여자고등학교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연중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도시인 부산 출신.

고향의 활기찬 분위기와 에너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타인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해서 부산의 복지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고령자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아이들을 좋아해서 장래 희망은 교사.



진민탁 (Min-tak Jean)

서울 대학교

최근 도시화를 위한 재개발 정책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퇴거를 강요당한 광명시 출신.

고교 시절,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져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한 경험이 있다. 새로운 환경에 혼자

적응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런 경험이 자신을 강한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장래 희망은

교육정책의 영역에서 일하면서 한국의 교육이 모두에게 즐거운 체험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정예은 (Ye-eun Jung)

고양 외국어 고등학교

관문점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하는 최전선인 파주시 출신.

중학교 시절, 학생 명에 경찰관을 지낸 경험을 통해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이나 판단력,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장래 희망은 외교관이 되어 한일 간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헌하는 것.



김형태 (Hyoeng-tae Kim)

명지 대학교

어린 시절, 한국의 경제 위기로 아버지의 사업이 파산에 이르렀다. 그때의 커다란 시련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 자신을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으며, 장래 희망은 문화 교류활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다.



김민수 (Min-su Kim)

고려 대학교

고교 시절을 중국에서 보내며 여행의 즐거움과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다.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고, 특히 한국이 앞으로 일본이나 중국과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장래 희망은 외교관이 되어 아시아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에 힘쓰는 것이다.



이다연 (Da-yeon Lee)

경상 대학교

어린 시절, 동급생과 잘 지내지 못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장벽을 넘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경험을 했기에 장래에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 타인을 격려해주고 싶다고.



이예슬 (Ye-seul Lee)

한양 대학교

백제의 고도인 공주시 출신.

일본 학생들과 백제의 역사에 대해 함께 생각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장래 희망은 교사로, 일본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한일관계에 있어서 의미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번 기회를 통해 일본 학생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고,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자신의 학생들에게 그 경험을 얘기해 줄 생각이다.



우형석 (Hyung-suk Woo)

성균관 대학교

고교 시절, 가정이 경제적으로 곤란해져 좁은 아파트로 이사해야만 했다. 대학진학마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친척의 도움으로 진학할 수 있었다. 장래 희망은 섭외 변호사, 또한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이상